The Koren Daily News.

THE PROHIBITION OF ALCOHOL AS A BEVERAGE. By Rim Eui Sik.

refers to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intoxicating liquors, This subject, as you are doubtless aware,

to-day in the united states this movement has been crowned with success and we have-" Dry America." Experimental researches concerning alcohol

have quite altered the attitude of the medical profession towards it during the last decade. As a direct conseduence, its use in the treatment of disease is as rate to-day as it was formerly

Our knowledge and ideas have chanced, particularly in reference to the so-called

a food, The word "stimulant" is almost synonymous with alcohol to the popu'ar mind. But careful scientific research has proved that alcohol is in no sense a true st'mnlant to the ci culation in healthy persons, Alcohol does, however, produce very marked alternations in the distribution by the blood, as is seen in the flushing of the capillaries of the skin after its moderate use-

、結合 合

Seoul, Korea, Tuesday, Dec. 21st, 1925.

The term "The Prohibition of alcohol"

This subject, as you are doubtless aware, has been considered by many from the earliest times up to the present.

P. Ohibition was considered, in the Golden Age of the Rast, when in 2257 B. C. the Remperor Shiin of China told his people that a king could be ruized by alcchol. In 45 B. C. one of the kings of Sinla made a law prohibiting the use of alcohol, and during the golden rule of King Seechong, prohibition was practised for some time.

So we see that the people of long-ago realized the harmful effects of this drmk and the mited states this movement has

stimulant effect of a cohol and its action as

學校及生徒數 學的學校及生徒數 學的學校之,小學校三、私立普 會面學校六、小學校三、私立普 後一、學院一個所引出校別及生 徒數与左肥出如奇叶□司

本普里休外 特別大学 等の工管通路校五六年生里休 解決時の機性者言む中の災け解決時の機性者言む中の災け解決時の機性者言む中の災け解から不拘が立主動者足認が要領国からの大力の場合。

大下正公普後接會創 ・大下正公普後接會創 ・大下正公普後接會創 ・大下正一圓3有志路氏之義務的 ・一圓式納付990、會員01年年會金一 圓式納付990、會員01年年會金一 具外其他31 設置の開始が12 と ・「一圓3 を ・「一圓3 を ・「一圓3 を ・「一圓3 を ・「一圓3 を ・「一圓3 を ・「一頁3 を ・「一頁4 を ・「一頁4 を ・「一頁4 を ・「一月4 を

四〇〇六六〇八一名 | 四〇八七七四六二四〇 (A

| マット | イリック |

いう四プロ会会外で 一新女高普に初い 一新女高普に初い

事金健泰外上會長金弼股

一人(端川)

式

支局

後 接 朝鮮日 育祭五十錢(本支局)外 有 會 朝鮮日報社仁川古錢(南引祭持參可限)海祭三時(南京局の分級行党)白拳五 ##演

神田間無

松批月间古天度加水县。 競響 學 尚 年 山 銷 同同同同同同同例同同同同间间间间间间间间间

古 威 光 城 化 城 同同同同同同

- ō 七三

四三三七二一

五四八九九七七

注申申申

-00

八

五五四〇

公病患者激增

臨時政府員の中卫

路費量强

山煙草元賣社

正事件

0

古かなりの日の日日日

간토옥의 외육진창설모들어오나 어느누가조희한장부치주는이엄 일뿐아니라 거친자리 선혈이림 리한테누엇스나국 구는사람도업

→ 사람들은 주목하여 관망하는 정 나 그중에도 혹시 확막이 나업 는가하여 더욱 취미있게 장래를

동회로

보고 이 등 수를 그리고 요 등 비리 보다 지수 등 이 라이라고 나를 기다리다가 내 말을 바 다이 다이 되는 분이 나 서 그는 다이 하였다 다시 말을 바다이 다시 다른 지하였다 다시 말을 바다이지 아니를 지하였다 다시 말을 바다이지 아니를 지하였다 다시 말을 다시 하였다. 그는 이 지하였다 다시 말을 다시 하였다. 그는 이 지하였다. 나를 주이라고 나를 주이라고 나를 주이라고 있다. 나를 주이라고 있다. 나를 주이라고 오면서 내게 손들 다시 다른 이 지하였다. 그는 이 지하였다. 그는 이 지하였다. 나를 주이라는 다시 하였다. 그는 이 지하였다. 그는 이 지하였다. 그는 이 지하였다. 그는 이 기하였다. 나를 주이라는 다시 하는 다시다

하야 신데가건강치못한 병드남 원과한가지 손목을마주집고 큰 크히로동e를하다 스탈그날의 생 활출하나중에열비살먹으아들과 생 월하건마는 나와가리 귀치안흔 여기 가다 기차라리네가 살어 기리비장한 생활을 다르고남의기와 아을떠나매작을입으의기리기와 하는것보다는 지속죽어서 세상 이로도 불행하 이그남편으의 기리기와 원하건마는 나와가리 귀치안흔 하는것보다는 지속죽어서 세상 이로도 불행하 이그남편으에 기리기와 원하는것보다는 지속죽어서 세상 의로 불행하 이그남편으에 기리기와 원하는것보다는 지속죽어서 세상 의로 불행하 이그남편으에 기리기와 원하는것보다는 지속죽어서 세상 의로 불행하 이 그남편으에 위한 기리비장한 생활을 하는중에 위 원취 참한 생활을 하는중에 위 바되야 원기와가리 송치하였다 역 경우롱롱널를지난룡일하나청 타되야 원기와가리 송치하였다 역 경우롱롱널를지난룡일하나청

河)부근에서 생물집으라고총을 지)부근에서 생물집으라고총을 무한머리를 쏘아머리가약 일존가량이나 돌아가피 아저지

하자는 천장에주시 졸도하얏스나 다행히생병에는 위험이엄을 당해계립의원(學凝變林曆))이임원하였는데 약이주일기

一关丘下 二层의 모려서

包 电电影系统 电图

風成)(三)9 850 ログ 아동행하아 동군읍내로 나려다가 용비위압까지 오도롱鉱더으로 도로집으로 가다가동 교월리(校月里)로 중행하는 무령불가를살려보는 경이 옷인

世世紀に召り出 む大年公司 コンナー ひゅうところ

프 프리에게 목소깃다주고 장래를 동는 사람들은 빗의자선심들층

열州七号 BMF 已 0 时日

상다인바 무슨리유로 이외가리 5등고치운밤에 현악한 물가에 5등고치운밤에 현악한 물가에 하한사실을 발설치아니하고 그 다두고 여러분의 도마가라고 그 다두고 여러분의 도마가라고 그 다우고 여러분의 도마가라고 그 다우 재삼무를속 필정대답하는 일이 나의성명의 리크택 (李根)이요 주소는보급하내리인데 바으로쳐아면생각하여도죽는도 비외에는다른계교가입기로오늘 방이물에바거죽으려오길이라말 함이로이말을 등이완한건길이라말 우이상하고놀라움들까닷지못하

清州農會의非行品

隣郡農會哥及發見

갑을만히준다는표방이로

[三] [八]

急州己曾 明年中日 5年

白 眼子譯

왕이사라잇다는말을 돗교는 나다려 못생짓다하였다 그래시나 [변수회 서나라와나와 첫화보자] [대자압해서나라와나와 첫화보자] 二时円出か下巻小ののり

爆彈投下演習中 五元七

의

抵當や **入親所有**

자기집 안방등입하듯? **사천원을어** 더

演士『每校一名式來廿八日智

場所時日追後發表

朝鮮日報社

+五番地)朝鮮學生會教養部呈

입은것은맛부터 ヒスをむむ合 사원짜리오막살이 가주하는집명**재은**

십칠본오후 ア是外中四四

얼마나가런하냐

변환보 되어 사장하다 전 교육 (京 대 교육 (대 교육

다시함의 복합이로 다려나주고 아목조록 아침하라의 보호 원래 환급이적시 파티드 파티의원에 미

元山地方積雪

한 바다의 라면도하이라는데 그자에 한 바다의 라면 라면 바이이하면 지난심말의(음력심의원소산원)신 라진(新羅律) 짓날이 대단군농 회에서 육다면밀세근을 초사람 이기들리면 청작군농회에서 신 한진이 출장하여 공동판매하는 원산(元山)디방에는 이십일이 아침부터 내밀분이 이십일의 오친 왕일이 일본의 이십일의 오친 얼하였으며 아주도까속하여 내리 나중이나 봉쪽이로 드리끌스 목 설탕(雪잎)이건이서 명치 명치 영지(테川)의 오촌 정진(清津)의삼 장이라더라(대신국착진)

면플감을 만히주고산다는 표방 건것이라고한다 소두번이나열세 근의육디면을 8만두건감을 주고 상다한다 초민측에서 이것을 주 장하면 가짓말이라고 쌪대겠지 하는 정우되는그리 되다 전해가 하는 정우되는 그리를 되었다. 그리 무어렵겠지 하는 정우되는그리 비행도덕발 1

왕당군 병곡면사원동(盈總郡柄 악회사이민일본인매원(梅原)모 는지난십사왕으호에시장에동군 등양력 獵銃에 **역人川里** 司에分替不正 不注意三因立慘劇頻出 마 かかいきといるとからない **对重傷**

파다가 열오후 아홉시장에 밀양읍내의 동(密陽呂內二洞)공를불무명(상대) 불기일어나서 참고에의 무불플래운후 동괴시장에 밀양읍내이 왕이나되며 왕인은 실화인가혹 병급도사중이라더라(필양)

보고 말에서나려와 나를봇드 이 기 피가뭄시홀與다 나는 도련 이 다려 그놈을 따라가라하면 스나 아니가는고로 현황이탈을 불리치고 말한 이 보고로 현황이 되는 도련 이 나는 도련 이 나는

三二明以内 计基础公司 年中では今の十 かにな

나는 왕이사당다는 소리를 갖고 해서 유청이나 아오지아니라 맞다 그 배에야 내용이 곤라고치워서 도현형이를 꼭 切어인고 잠이 드